한글이름 절 '눈에 띄네'

'연꽃피는 절' '마음의 절' 등…한글의식 정착 한몫

광주에 사는 반야행보살(55)은 최근 '연꽃피는 절'을 참배한 뒤 무언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에는 이런 절 이름이 다 있나 싶을 정도로 충격도 컸다.

그러나 연화사(蓮華寺)를 한글로 그대로 풀어 쓴 것이며 '연꽃피는 절'의 뜻이라는 말을 듣고 나서야 의구심이 풀렸다. 게다가 법회도 한글의식으로 치뤄져 한문을 모르는 반야행보살에게는 의식일체가 머리에 쏙쏙 들어왔다. 그동안 뜻도 모른채 입으로만 읊조렸던 것이 최고의 신행생활이라고 믿어왔던 사실이 부끄럽게만 여겨졌다. 그리고 이젠 신행생활을 위해 일부러 먼곳의 유명사찰을 찾을 필요도 없게 됐다.

이처럼 우리말로 표기된 사찰이 불자는 물론 비불자들에게까지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본지가 9일 한글날을 앞두고 조사한 바에 의하면 9월 27일 제주 관음사가 서울포교당 '마음의 절'을 개원한 것을 비롯 현재 서울 마음의 절, 창동절, 산이깊은 절, 부처님 계신집, 광주광역시 연꽃피는 절, 경기도 이천 우리절, 전남 곡성 작은 절 등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한글이름의 절이 등장한 것은 90년대 초반부터이며 포교당이 주를 이룬다는 것이 특징이다.

혜우스님(작은절 주지)은 "사찰이름을 굳이 딱딱하게 한문으로 표기해야 할 이유는 없다"며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한글이름사용이 오히려 포교에 큰 효과를 얻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한글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찰주지스님들은 "신도들이 처음에는 어색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집같이 생각하는 것같다"고 입을 모았다.

반면 일부에선 "한글이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감은 없지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찰이름이 더 불교답다"며 "한글이름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김중근 기자〉

조계종 기초교육개혁추진위 발족

의제·호칭등 개선안 마련…졸업시험은 강원재량

비구(니)와 사미(니)의 기초교육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교육개혁추진위원회가 발족된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암도)은 1일 기초교육개혁추진위원회 구성과 운영규정을 확정 발표하고 8일 총무원 4층에서 발족식을 갖는다.

기초교육개혁추진위원회는 비구(니)와 사미(니)의 의제 및 호칭문제, 승려증 발급문제, 승가위의와 기초교육 등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게 된다.

기초교육개혁추진위원회는 총무원장과 교육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9명의 자문위원과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총무원 교육원 각 2명, 중앙종회 4명, 계단위원회 2명, 동국대교수 1명, 중앙승가대교수 1명, 비구니계 2명, 간사 1명 등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학인에게 '학인증'을 발급하고, 호칭도 '학인'으로 통일키로 했다.

도갑사 출토유물 도갑사로 반환

문화재관리국, 청동문수동자상등 15점 사찰소유 인정

지난 3월 전남 영암 도갑사(주지 범각)에서 발견돼 조계종과 문화재관리국간의 소유권 분쟁이 있었던 청동문수동자상 등 유물 15점이 도갑사로 반환조치됐다.

조계종 총무원에 따르면 문화재관리국이 도갑사 출토 유물에 대한 사찰소유를 인정, 반환조치하겠다는 공문을 9월25일 보내왔다는 것. 이번 반환조치는 매장문화재는 국가 소유라는 기존의 관례를 깬 최초의 사안으로 향후 사찰소유지에서 발견된 문화재가 사찰소유가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발굴담당자인 목포대 박물관이 임시보관중인 도갑사 출토유물은 도갑사 여건상 지속적인 보호관리가 힘들어 본사인 대흥사의 성보전시관에 보관할 예정이다. 다만 대흥사 성보전시관이 건립중에 있으므로 위탁기관을 총무원과 도갑사가 협의, 임시보관하게 된다. 또 성보보존위원 및 문화재 전문가에게 이를 감정의뢰, 문화재적 가치가 인정될 경우 문화재신청을 할 방침이다.

조계종 문화부장 원학스님은 "앞으로 조계종 사찰에서 출토되는 모든 매장문화재에 대한 관리는 물론 문화재 지정신청을 해당 사찰과 협의, 출토에서 관리까지 종단 중앙에서 총괄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조계종내 발굴기구와 박물관 건립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철스님 사리탑 크기놓고 '논란'

해인사 소장파스님들 "축소하라" 반발

성철스님의 사리를 모시게 될 부도전 건립규모에 대해 해인사의 소장파 스님들이 반발하고 나서 구추가 주목된다.

원학 향적 여연 현응 선혜스님 등 20여명의 해인사출신 스님들로 구성된 상림회(상임의장 원학·조계종 문화부장)는 9월27일 종무소에 성철스님 부도전 조성중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 현재의 부도전 건립규모를 축소조정 해줄 것을 요구했다.

상림회는 성철스님 부도전의 규모가 총 1천여평에 사리탑의 높이도 3.5m 정도에서 바로옆에 위치한 다른 큰스님들의 부도탑과 형평을 이루지 못할 뿐 아니라 무소유의 삶을 살다간 성철스님의 평소뜻과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성철스님 문도회측은 "성철스님 부도전이 3년전부터 준비해온 것으로 산중회의 결정과 문화재관리국의 허가를 거친 사안"이라며 공사를 계속할 뜻을 비치고 있어 마찰이 예상된다.

부도전은 성철스님 5주기를 앞둔 98년 7월30일 준공될 예정이다.

주한 외국인스님 첫 연수회

조계종, 11월5일부터…11개국 37명 대상

주한 외국인스님들에게 조계종 고유의 수행법과 한국불교의 특수성 인식토록 하기위한 연수회가 열린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암도)은 오는 11월5일부터 7일까지 2박3일간 송광사에서 '97년도 주한 외국인스님 연수회'를 개최한다. 조계종에서 주한 외국인스님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11개국 37명의 종단재적 외국인스님을 대상으로 한 이번 연수회는 조계종 수행법과 한국불교에 대한 인식제고 외에도 한국에서의 수행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외국인스님들간의 모임 유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교육내용은 발심수행장, 소참법문, 한국의 선종사상, 참선실수, 다도실습, 한국불교의 문화, 한국 사찰 조형의 특징, 구산선문 탐방 등이며 강의 및 슬라이드 상영, 답사 등으로 진행된다.

초등교 사회교과서 '직지' 관련 잘못 기술

현존 세계 최고의 직지심체요절이 초등학교 교과서에 최초의 금속활자본으로 잘못 소개, 고려의 금속활자 발명시기가 2백년가까이 늦어진 채 교육되고 있어 조속한 시정이 요구되고 있다.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사회교과서 59쪽에는 직지심체요절의 컬러사진이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로 찍은 책'이라고 적혀 있다. 관련학자들에 따르면 직지는 현존하는 세계의 금속활자 인쇄물 중 가장 오래 됐으나 최초의 인쇄물은 분명 아니라는 것.

"참회 합시다" 육군교도소 위문법회 한국불교교화원(원장 백운월)은 9월30일 경기도 장호원에 있는 육군교도소에서 수련생 위문법회를 개최했다. 3백여명의 수련생들이 참회와 죄업소멸을 하여 갱생의 길을 걷도록 하고자 마련된 이날 행사는 사물놀이 공연에 이어 명국환, 남강수씨 등 불자가수봉사단 회원들이 흥을 돋우웠다. 이번 위문 행사에는 한국불교교화원 이외윤총재 이사장 성도스님을 비롯 동림동문회 회장 성웅스님, 동대불교대학원 총동문사회복지회 자용스님, (사)자비와행함이하나되어회 회장 송묵스님 등 사부대중 4백여명이 참석했다. 〈장호원=김주일 기자〉

목탁소리

장애인도 동참한 법회

이 경 숙 〈취재2부 부장〉

9월28일 부산 사직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1세기 팔만대장경을 만듭시다-대행스님 부산대법회'는 팔만대장경 전산화가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는 사부대중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진 뜻깊은 법회였다. 이날 3만여 사부대중은 팔만대장경이 21세기의 대장경으로 새로운 생명얻기를 간절히 바라며 즉석에서 모금액과 약정금이 3억5천여만원을 넘었다고 하니 뜨거운 동참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날 이것 못지않게 가슴 뭉클한 광경이 있었다. 뜻깊은 이 법회에 뇌성마비 청각 시각 장애인들 1백여명이 3시간 법회 내내 동참한 것이다.

대부분이 부산장애인총연합회 회원들인 이들은 휠체어를 타고, 맹인용 지팡이에 의지해, 또는 서로서로 손을 잡고 일찌감치 법회장에 입장, 정상인들과 같이 삼귀의를 하고 반야심경을 봉송하고 법문을 듣고, 팔만대장경 전산화를 위한 성금까지 정성스럽게 기탁했다.

지금까지 불교계에는 크고 작은 수많은 법회가 있었지만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에는 인색했다. 부처님오신날, 법회행사를 TV 방송사가 중계하면서 수화봉역이 나온 적은 있지만 장애인들이 대거 법회에 초청되어 법문을 직접 들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무척 고무적인 일이다. 장애인들도 법회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배려가 있어야 한다. 그들은 단지 몸이 좀 불편할 따름으로 법회에 참석해 스님의 법문을 직접 듣고 싶은 마음은 정상인들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수많은 도심포교당이 새로 생겼지만 휠체어가 다닐 수 있게 배려한 곳이 어디 있는가.

이날 부산대법회에 동참한 청각장애인 이창도거사(63·부산 영도구 동삼동)는 "불자이지만 이런 큰 법회장에 직접 나온 것은 처음"이라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스님의 법문을 직접 들으니 무척 기쁘다"고 수화로 소감을 피력했다. 법회가 끝나자 이거사를 비롯한 장애인들은 팔만대장경 후원금을 정성스레 봉투에 넣어 앞다투듯 모금함에 동참하는 흐뭇한 광경을 연출했다.

뉴스 & 뉴스

특수전학교법당 이달말 기공

지난 5월 종교탄압 정책으로 물의를 빚었던 육군 특수전학교에 법당이 세워진다. 육군 특수전학교를지원하고 있는 노도영법사(봉화사주지)의 발의에 임선교 성남 불교신도회장, 성남·광주·용인·사암연합회 임원 등이 후원회를 결성하고 법당건립을 추진해왔다.

이달말 기공식을 가질 법당건립은 대지 2백평, 연건평 1백평, 2층조립식 벽돌건물(1층 80평, 2층 60평)에 총공사비 2억원 규모로 내년 3월 완공된다.

동화사등 4곳 박물관 검토

문화재관리국이 9월30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조계종 25교구본사 중 9건이상의 지정문화재를 소유한 15개 사찰 중 법주사 등 7개 사찰이 이미 성보박물관을 건립했으며, 월정사 등 8개사찰은 공사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정문화재가 9건 미만인 관계로 성보박물관 건립에서 제외됐던 동화사 범어사 백양사 쌍계사 등 4개 사찰은 성보전시관 건립전 소장 문화재 지정을 추진, 9건 이상을 확보한다는 조건하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중앙신도회 전국수련회

조계종중앙신도회(회장 송재건)가 18~19일 경기도화성 신흥사에서 제1회 전국신행단체 대표자 수련대회 개최를 계기로 본격적인 조직화 작업에 나선다. 〈관련인터뷰 4면〉

중앙신도회는 9월 29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수련대회 대주제를 '바람직한 신행단체의 미래상'으로 정하고 '신도·신행단체가 현재 안고 있는 문제점' '각급신도회와 중앙신도회와의 바람직한 관계'를 분과토론 주제로 확정했다. 중앙신도회는 이와함께 상임이사 및 비상근 기획실장으로 최일산법사(월곡청소년센터 관장)와 김동흔씨(경불련 운영위원장)를 각각 임명, 백영식 사무부총장 사퇴로 인한 사무국 공백을 메웠다.

4개 종교대학 北돕기 연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원불교전국대학생연합회, 전국가톨릭대학생협의회, 한국기독학생총연합회와 한총련소속 50여개 대학 총학생회 대표 30여명은 2일 조계사 문화회관에서 북한동포를 돕기위한 연석회의를 갖고 겨울용품, 의약품 접수를 비롯한 모금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기로 합의했다.

전승련, 대의원회의 체제

전국승가대학학인연합(의장 원돈)은 9월26일 제4차 대의원회의를 개최하고 8대 의장 원돈스님이 개인적 사유로 사퇴함에 따라 비상대의원회의 체제로 운영하기로 의결했다.

한편 비상대의원회의 의장으로는 범우스님(송광사)이 선출됐다. 비상대의원회의는 전국 학인대회 개최 등 하반기 전승련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세계인의 상표 SANYO

반갑다! 최첨단 안마의자!

두들겨 주고, 주무르고, 피로를 풀어준다

모델명:HEC—751(HD)

우리몸 6000여곳의 경혈을 풀어주는 —
일본 산요 침대형 안마의자

세계 중·상류층 인사들이 격찬한 산요 안마의자로
도시의 각종 공해와 스트레스에 쌓인 피로를 그날에 풀으십시오.
건강한 노후를 생각하신다면 안마의자는 사치품이 아니라
이제 가정 필수품입니다.

■기능

■사양
- 두드림맛사지/ 주무름맛사지/ 두드림 주무름 혼합맛사지
- 전문지압사의 리드미컬한 손놀림에 가장 근접한 인체공학 안마
- 3가지 자동코스(목, 허리, 상반신)(15분)/ 3단속도조절/ 최고급 빌로드 쿠션 등받이 각도조절/ 진동식 다리맛사지 등 첨단 기능
- 크기 폭68cm×길이96cm×높이109cm
- 무게 3kg / 전압 220V / 원산지 일본 / 공급원 (주)태경그린

※ 일본 외료용 기구 승인 ₩3,300,000 ▶ 할인가 ₩2,740,000

전국 어디든지 배달과 A/S를 해 드립니다

30% off

우리몸 6000여곳의 경혈을 풀어주는 —
콤퓨러 안마의자

콤퓨러 안마의자는 한국인의 체질에 맞는 제품으로
신경통·관절염·자식 걱정 등으로 고생하시는 부모님께
드리는 최고의 효도선물로, 날마다 자식 걱정으로 잠못
이루는 부모님께 편안한 휴식과 깊은 수면을 드립니다.

■기능
- 주무름 기능 — 전문 지압사의 손놀림으로 좌우상하로 누르고, 조이고, 당겨줍니다
- 등줄기 두드림 기능 — 등 전체를 가볍게 두드려 줍니다. (후두부에서 요추까지 자동상하운동)
- 등줄기 맛사지 기능 — 등줄기 전체를 주무르듯 펴 줍니다.(후두부에서 요추까지 자동상하운동)
- 부분 등줄기 맛사지 기능 — 원하시는 부위를 집중적으로 펴 줍니다. (자동상하운동)
- 두드림 기능 — 주먹으로 두드리는 기능으로 경직된 근육을 풀어줍니다
- 등받이 각도 조절 기능 — 원하는 등받이 각도를 리모콘으로 조작 할 수 있습니다
- 이동용 바퀴 부착 — 이동도 자유자재, 청소할 때도 편리합니다
- 자동 코스 맛사지 기능 — 전문 지압사의 맛사지 순서와 동일한 코스 맛사지입니다. (3가지 자동코스)
- 타이머 내장 — 약15분 작동후 자동 정지됩니다. 적절한 사용시간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특징 재질:고급레져 / 220V 전용 / 원산지:대만 / 공급원:(주)태경그린

모델명:TS-6301

₩1,980,000 ▼ 할인가 ₩1,380,000

판매원: 한양M&C
서울 종로구 내수동 4번지 옥빌딩 803호
전 화: (02)737-8891(대)